

# 震默大師小傳

# 震默大師小傳

〔값 3,300원〕

1983年 1月 25日 印刷

1983年 1月 31日 發行

版權  
所有

編者 李 一 影  
(本名 泰植)

發行者 李 建 鎬  
(翠 山)

國際佛教徒協議會

發行處 圖書出版 保 林 社

서울·鍾路區寬勳洞 198 의 16

電話：723 - 7107 ~ 8

登錄：1977.4.11 第 8 - 65 號



愛之與之遊處於離索三  
 切得靜寂者三誰能認真  
 眼衆僧尚乞師爲奇春洗  
 作者各授一針於鉢中師鉢  
 鉢喫之自若諸僧之鉢依舊

師居村後之日出處夏日  
 豐而歐蚊自後至今一村水  
 今之文曰中月之恩

食未能忘美萬教士更加  
 十內未滿百年母之壽何其

既云已美橫釵閨中未婚  
 壇罷僧尋各房前山疊校

云歸葬於萬頃北面之維  
 得農故遠近村人爭先恐

香火不絕  
 飲句酒云則不飲有僧設  
 人師鳩拔而往問曰汝瀧  
 返俄而又往問曰汝瀧什

返瀧更又往問之如前僧  
 下酒師遂斷望而返俄有

僧  
 僧皆秋乞去惟與侍者者  
 水光判器供置諸桌上而飲

震默大師小傳(目次)

# 目次

一四

## 畫報

- ① 震默大師의 影幀 ..... 一
- ② 揮毫：〔震默大師의 遺詩〕 ..... 湖山金憲泰(漢學者)先生 ..... 二
- ③ 震默大師浮圖・④ 震默祖師遺蹟碑 ..... 三
- ⑤ 震默大師의 影幀이 奉安된 寺庵 ..... 四
- ⑥ 聖母調意氏의 影幀・⑦ 聖母調意氏의 墓所 ..... 五
- ⑧ 震默祖師遺蹟攷版本(龍隱李致道氏所藏) ..... 六

## 序

古逕 李英茂 教授(建國大)

九

## 自序

編者 李一影

十二

## 第一編 遺蹟攷

### 序

隱皋 金箕鍾

一九

### 序

草衣 意恂

二九

## 遺蹟攷上

### 震默大師逸話(外)

草衣 霽山

四三

授手開經自若早上應命  
候師曰汝不參禪而徑來耶  
如夜之已經也

取遙遙於東野之外審而  
之佛燈也師遂移錫改

羅漢道場十六尊者常與  
明者蓋羅漢之所以啓發

師善以大通數百而將欲  
逃走宜男兒事但歸家判  
漢將有好道理吏去依教  
羅漢因謂吏曰府中有或  
而甚薄無聊師曰勿謂無

州上

過三十日吏去師持拄杖  
三下曰甚吏事善助之豈  
曰爾有所求當直就我輩  
而致苦我耶以汝則不顧  
故今視汝事後無如此吏  
微訟繁興囚徒盈挫三十  
他吏未幾新吏拘於微賂

彌與之同行至樂水川邊  
淺深遠露足輕輕而涉師

來夫出始知見戮於羅漢

釋迦如來因地

遺蹟攷下

影堂重修記

跋

狀

遺事跋

後記

## 第二編 附錄

一、震默大師

東師列傳

震默祖師無縫塔並序

海東源流(筆寫本)

韓國歷代高僧傳(金東華 博士著)拔萃

震默大師小傳(目次)

九三

芝園 趙秀三 一〇七

草衣意恂 一一四

霽山雲皋 一二二

金 永 坤 一三〇

金 永 學 一三五

梵海覺岸 一三七

石顛鼎鎬 一四一

一四七

一四七

一五



可及終不能回入持其法  
如宋與千二百阿羅漢弟  
今暫現化於此間元是震  
我先元是我所教之弟子  
五大師自謂也從前常教  
本教警也

寺不遠之地有鳳谷先生  
自綱目貯鉢囊自擔而行  
披閱手一卷看了拋地又  
門盡拋不顧而入他日  
之何也師曰得魚者忘筌

至中路見師望空徘徊  
生子麼女不會師曰春  
我來也女返命先生待  
逆師曰道有一段靈氣

挽注不遇其人卻恐散  
而遠屏於空外故來自

鮮于溪邊師俯視沸鼎  
鑊湯之苦一少年戲之  
也善與少年曰這一泓

在口頃呷了無餘於是眾  
無美宣僧也師曰殺則非

震默大師小傳(目次)

震默大師와 火浦..... 一五一

震默大師의 驅除邪魔..... 曼庵文集..... 一五二

金堤郡誌..... 一五三

韓國口碑文學大系(全北全州市完州郡篇)拔萃..... 一五三

진묵대사의 일화..... 一五三

① 누님을 석양에 오십리를 가게 하다..... 一五四

② 해인사 화재를 솔잎물로 멀리서 끄다..... 一五五

③ 중고기를 먹고 살려내다..... 一五五

진묵대사와 봉곡..... 一五七

① 절의 방에 얹힌 전설..... 一五七

② 진묵대사와 김봉곡의 대립된 이야기..... 一五九

천년향화지지(千年香火之地)를 잡은 진묵대사와 김봉곡..... 一六四

진묵대사(멀리서 불끄다)..... 一六八

진묵대사(붓으로 불끄다)..... 一六九

진묵대사와 쌀 나오는 구멍..... 一六九

太古寺와 震默大師..... 一七〇

歎服解網而去

郊谷中侍者曰送與阿誰

持盃越嶺下谷有獵士

坐侍者致盃于前皆喜

佛谷谷有之者正謂此

師接之舍數口向東方

八將至及燒忽有一陣驟

洞白濁粘物成癰其寺失

乙糧遠出月餘乃返師面

屢振絲通名拜謁師曰爾

惟以麤和水而食諸僧厭

其麤哉一僧持飯盂自空

可何必親來僧言小衲見住

惟而執之為神力推引到

異之情願朝夕供養拜辭

飯往孟來者四年師語諸

十四

大元果至今貧窶云

鴻山之無量寺同時塑像

授一物置諸證壇以旌運

必當善成後勿率爾

自點眼前慎勿出沙門外於

朝鮮禪教史……………一七二

朝鮮人名辭書……………一七四

二、聖母調意氏碑……………智異山人 陳震應……………一七四

三、順德華李氏夫人事蹟攷……………學默居士……………一七八

四、鳳谷金東準紹介

鳳谷公墓碣銘並序……………尤庵 宋時烈……………一八二

湖南節義錄(卷之五上)……………一八七

朝鮮人名辭書……………一八九

光山金氏世譜……………一九〇

五、謹次震默大師追慕韻……………一九二

跋……………文學博士 法雲 李鍾益(前東大教授)……………二〇六

卷一「遺蹟攷」版本

震默大師小傳(目次)

기를 내가 다시 와서 佛事를 하기 前에는 佛身에다 손을 대지 말라 하였음으로  
오늘까지 本庵 佛像은 改金을 하지 못한다 한다. [白羊寺의 傳說]

### 金堤郡誌 (一九五六年 十月發行)

震默大師生於萬頃火浦하야 參禪道通하고 食魚下瀉하면 生魚로 化하니 世俗이 僧  
魚라 稱하다 魂이 西域에 入하여 八萬大藏經을 誦하야 傳于佛家하였으며 在全  
州鳳棲寺 修道時에 海印寺 失火를 知하고 松葉으로써 灑水하야 化雨滅火하였  
다 한다.

### 韓國口碑文學大系 (全羅北道 全州 市·完州郡篇) 拔萃

[완산동 설화 4] T. 전주 3 앞

완산동 기령당 1980. 1. 29, 최내옥 조사.

백낙환, 남·90.

### 진묵대사 일화 셋

\* 조사자가 『지리산 산신령 이야기 들었는가요?』

하고 묻자 들려준 이야기이다.\*

못들었어. [조사자.. 이삼만(李三晩)이나 진묵대사(震默大師) 이야기는 못 들으셨는가요?]



진묵대사? 유명했지. [조사자..진묵대사 이야기 좀.]

응, 진문각이라고 곰소란데 절이 있네, 거기다가 영정을 그러서 절에 두었지. 위해봤지요. [조사자..김제 어디면 사람인가요?] 김제. 어딘지는 가서 알아봐야 알겠네.

① 누님에 선양에 오십 리를 가게 하다.

생가(生家)에 누님이 있었는데, 매씨(妹氏) [조사자..진묵대사에요?] 응, 하도가 난하닝개, 진묵대사를 찾아갔어. 해가 다 저물었는데 쌀 몇 되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 잡수시라.”

고 그래. 해가 더 저물어가서 어둑발이 되었는데, 그 놈을 갖고 가서 나서닝개 어두워진단 말이야.

“아 이거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나?”

“아니라우, 누님이 집에 가시드라까지는 어두워서 못 가지는 아니할텐개, 가십시오.”

[조사자..누님이 찾아갔구나.]

“여자들이 절에서 자는 것은 실례입니다.”

[조사자..그럼요. 실례지요 웃음.]



해가 지운(지운) 넘어가는다, 사 오십 리가 되는데 거그를 다 가서 동네 앞에  
씩 들어선개 해가 그때야 딱 넘어가. 「청중...그리 알았던거여.」 「조사자...해를 불들  
었거나, 축지법을 쓰게했거나 한 거구나!」 봉사라는 절에서,

## ② 해인사 화재를 솔잎물로 멀리서 끄다.

저 합천 해인사(陝川海印寺)에 경판(經板)을 담아 두는 데가 있는데, 어떻게  
잘못해서 화자가 났어요. 「조사자...화재 저런.」 팔만대장경이 다 타게 생겼어. 큰  
일났어. 상좌보고,

「바릿대 가지고 가서 물 떠가지고 오고 솔가지 하나 가져오너라.」

큰 바릿대물을 솔가지 잎으로 적셔서 뿌렸단 말이여. 「조사자...바릿대에다가 물을  
넣어서 솔잎으로 뿌렸단 말이지요?」 「구술의 음성이 약해서 반복함.」 그래서 불을 끄고  
그랬다는 말이여. 「조사자...그 면에서 알았던 말입니까?」 그렇지. 「웃음」

## ③ 종고기를 먹고 살려내다.

여름에 어디를 대사가 누님한테를 가게 되었는데, 냇가에서 젊은 청년들이 천  
렵을 하더라고요. 물고기 잡아서 그것을 끓여놓고 술에 밥에.

「저기 저 대사 이리 오라고 중도 괴기 먹을 줄 아는가?」

「아, 주면 먹지요.」

하 이거 참 그 펄펄 끓는 고기국을 내주면서 먹어보라고. 먹으라고 하니까 먹제. 그 뜨건 냄비를 양쪽 피(손잡이)만 잡고서 그냥 「조사자.. 피?」 응 펄펄 끓는 놈. 「조사자.. 손잡이.」 뜨건 놈을 먹는 것도 먹는 것이지만,

‘중놈’으로서 고기를 먹는 법이 어디가 있을까 보냐?..

고 그 책망을 해. 「조사자.. 책망을 하지. 중이 고기를 먹는다고.」 「웃음」

‘중’이 고기를 먹어서야 쓰겠소. 도로 산 대로 내놓겠소.”

그리고는 궁둥이를 따고 똥을 누재. 똥을 누는디 큰놈 작은놈이 다 나오더라 고기가.

“다 내놔읍니다. 저 대가리 없는 놈은 대가리가 냄비에 붙었읍니다.”

「조사자.. 다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서 살아서 나왔단 말입니까?」 아하. 그게 중테기라고 있지요. 「조사자.. 중테기, 있지요.」 그 산꼭대기 물 있는데, 그게 중의 똥구녁으로 나오는 중테기라는 것인데, 비늘이 없어요. 비늘이 없어요. 「조사자.. 비늘이 없어요?」 미끈미끈하니. 속가(俗家)<sup>(1)</sup> 사람은 안 먹읍니다. 중의 똥구녁으로 나왔다고. 「웃음」 중의 똥구녁으로 나온 것을 먹어서야 쓰는가? 「웃음」

(1) 불가에 대하여, ‘중’이 아닌 사람의 집안“을 일컫는 말.